손절사회, 자비로 잇다
밥이 곧 하늘…밥집이 된 사찰

한 끼로 청년들 마음까지 든든히 채우다

서울 연화사 '청년밥心'

매주 화요일 오후 12~1시 운영
무료 제공보다 함께하는 '공양'
노고 담긴 음식서 자비 배워가
"연결되는 관계 기반 만들겠다"

5월 12일 정오, 서울 경희대 인근 연화사 공양간에는 점심 식사를 위해 모인 학생들로 북적였다. 봉사자들은 학생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많이 드릴까요? 부족하면 더 드세요", "오늘은 오이 반찬이 매울 수 있는데 괜찮아요?" 대화를 건넸다. 수줍게 웃으며 화답하는 학생들 사이로 공양간은 어느새 배를 채우는 곳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변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이 운영하는 '청년밥心'이 이날 연화사 공양간에서 펼쳐졌다. 2024년 6월 당시 대표이사 묘장 스님(연화사 주지·조계종 기획실장)이 추진한 청년밥심은 고물가 시대에 끼니를 거르기 쉬운 대학생들에게 건강한 사찰음식을 제공하는 복지 사업이다. 식사 제공뿐 아니라, 사찰의 공양 문화를 통해 청년들이 잠시 쉬어가며 공동체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현재 청년밥심은 연화사를 비롯해 숭실대 인근 상도선원(격주 금요일·50명)과 고려대 인근 개운사(격주 금요일·50명)에서 운영되고 있다.

묘장 스님은 "단순히 밥을 제공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배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고된 학업과 일상에 지친 학생들이 이곳에서 대화도 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느낌을 되찾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연화사 청년밥심은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된다. 이날 공양에는 각종 나물과 양상추샐러드, 상추쌈 등 채소 위주의 사찰음식이 차려졌다.

사찰을 어색해 할 학생들을 위해 연화사 스님들은 학생들 사이를 오가며 "입맛에 맞아요?", "뭐가 가장 맛있어요?" 질문을 쏟아냈다. 처음에는 멋쩍은 웃음만 내비치던 학생들이 스님들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을 열고 "취나물이 정말 맛있어요" 답하며 어색했던 분위기를 점차 풀어갔다.


연화사 포교국장 연기 스님이 5월 12일 열린 '청년밥心'에서 학생들에게 말을 건네며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비록 밥을 매개로 이어진 대화였지만, 학생들은 사람들을 만나며 잠깐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청년밥심은 학생들의 입소문을 통해 더욱 활성화됐다. 초기 15~20명에 머물던 참여 인원은 최근 신청 정원 80명을 넘어 100명까지 늘어났다. 또 일부 학생들은 공양을 계기로 자발적으로 수계법회에 참여하는 등 불교와의 인연도 넓혀가고 있다.

공양간은 학생들이 걱정·근심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 역할도 한다.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진 시대에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에서도 위로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휴학 중임에도 매주 연화사에 방문하는 홍주은(22·경희대 국어국문학과 3학년) 학생은 "식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 밥을 챙겨 먹기 어려운데, 주 1회라도 건강한 한 끼를 챙기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일처럼 집밥 생각이 더 많이 나는 날에도 혼자서 밥을 해결해야 하니 서럽기도 하다"며 "밥도 먹고 풍경 소리에도 위로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미소지었다. 여섯 번째 공양에 함께한 박정익(23·경희대 사회학과 2학년) 학생도 "사찰에 들어서는 순간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공간에 온 것 같다"며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고 전했다.

청년밥심에는 무료로 한 끼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누군가의 노고가 담긴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사함을 느끼고 학생들은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배워가기도 한다.

배식에 동참한 연화사 포교국장 연기 스님은 "음식이 내 앞에 놓이기까지의 수많은 과정을 알게 된다면, 먹고 끝내지 않고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밥심을 통해 사회에 관심을 갖고 더 선한 마음을 낼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연화사에서 2년여간 쉼 없이 학생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데에는 봉사자들의 원력도 컸다. 엄마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는 손영숙 연화사 신도회장은 "사실 봉사하는 우리가 더 감사한 느낌"이라며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기특하고, 늘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발걸음한 김은정(57) 불자도 "다른 걸 바라고 봉사하는 건 아니고,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찰 안에서 대화하고 위로받는 경험을 자양분으로 삼아 청년들이 더 희망찬 하루를 살아내길 바라는 복지재단은 지역 사찰과의 연계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공양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현 후원사업부 선임팀장은 "청년밥심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나아가 사람과 사회가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계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며 "오는 6월에는 청주 관음사와 용화사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부산 범어사와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희 수습기자

"쪽방촌에 따뜻한 온기 나누고파"

도성 스님의 '온드림 곳간'

동구 쪽방촌서 매달 생필품 보시
이야기 나누며 상담도 활발해져
"불교, 이웃 곁을 지키는 종교"
광산구 등 자비 플랫폼 확대 발원

"거창한 게 아닙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 물품을 걱정 없이 쓸 수 있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광주 동구 대인동 쪽방촌 한편. 공용 샤워실과 빨래방, 상담 공간이 있는 '쪽빛상담소'에는 최근 작은 변화가 생겼다. 필요한 생필품과 먹거리를 자유롭게 나누는 '온(溫)드림(Dream) 곳간'이 문을 연 것. 이곳에는 매달 빠지지 않고 생활용품과 먹거리를 전하는 스님이 있다. 광주 복암사 주지 도성 스님이다.

도성 스님은 "쪽방촌에는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있고, 잠시 머물다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우려는 사람들도 많다"며 "먹고사는 것 자체가 힘든 분들에게 생활용품 하나라도 덜 걱정하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온드림 곳간'은 광주 동구청과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쪽빛상담소, 자비신행회가 함께 추진하는 나눔 사업이다. 올해 3월 문을 열어 매달 정기적으로 생필품과 생활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도성 스님은 이 사업의 출발점에 대해 "자비신행회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부처님의 자비 사상과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동구에는 상담과 지원 체계가 갖춰진 공간이 있었기에 그곳에 물품을 두고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 가져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복암사 주지 도성 스님은 올해 3월부터 동구 쪽방촌 거주민들을 위한 나눔공간인 '온드림 곳간'에 후원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물품 지원 형태였다. 그러나 예상보다 반응은 훨씬 뜨거웠다. 스님은 "첫 달에 물품이 금방 동이 났다"며 "그래서 지금은 생일을 맞은 주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챙겨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금 바꿨다"고 전했다.

현재는 생일자들에게 먹거리 3종과 생활필수품 3종 등 총 6가지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화장지와 같은 소모품 수요가 많다고 했다. 도성 스님은 "필요한 것을 직접 고르게 하다 보니 정말 절실한 물품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며 "작은 물건 하나에도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내가 더 큰 기쁨을 받는다"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준비도 한층 늘어났다. 스님은 "초파일에는 먹거리도 조금 더 다양하게 준비하려고 한다"며 "사람들이 물품을 받으러 오면서 자연스럽게 상담도 받고 이야기도 나누게 되니 상담소 역시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도성 스님은 이번 활동을 단순한 후원사업이 아닌 '불교의 생활 속 자비실천'으로 바라봤다.

"소외계층 분들을 직접 만나면 내 스스로도 더 기쁘고 뿌듯합니다. 사실 불교는 원래 어려운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하는 종교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광주불교계의 자비활동에 대한 자부심도 드러냈다. 도성 스님은 "광주불교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결코 열악하지 않다"며 "자비신행회를 비롯해 사찰과 스님들이 꾸준히 나눔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자비실천이 상당히 활성화된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동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광산구나 북구 등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공간과 시스템이 생긴다면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각 지역 불교협의회와 사찰들이 조금 더 마음을 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특히 도성 스님은 앞으로 광산구에도 지역 맞춤형 나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 사찰의 힘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스님들과 불자들이 조금씩 마음을 보태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광산구에도 이런 자비 나눔 플랫폼을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광주 쪽방촌에서 시작된 '온드림 곳간'. 그 안에는 생필품 이상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이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대한불교조계종



나반존자 기도영험도량
금정산 미륵사
회 주 大蓮 眞愚
주 지 덕안
신도회장 무각 김기대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문로 126
전화 051)508-4707